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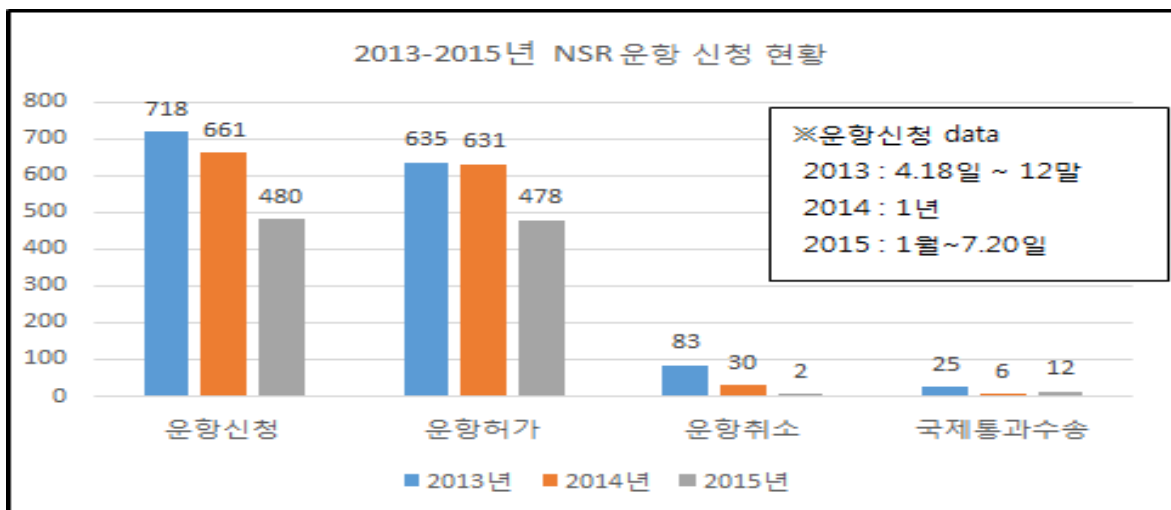
## [특집] 2015년 7월 현재 북극해항로 운항 신청현황 및 평가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2015.07.23.

### ○ 2015년 7월 20일 기준 북극해항로 통과수송 신청 선박 모두 12척

- ◆ 2015년 7월 20일 기준 NSRA에 모두 480척이 북극해항로 통항을 신청했으며, 이중에서 2척이 불허되고, 478척이 운항허가를 받았음. 478척의 선박 중 비러시아 국적선박은 모두 81척이며, 이중에서 북극해항로 통과운항을 신청한 외국선박은 총 12척임.
- ◆ 2014년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지속, 개정된 tariff로 인한 선사의 부담 증대, Novatek, Eurochem 등 핵심 화주들의 화물운송 부재 등의 이유로 당분간 NSR 경유 국제통과수송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COSCO의 북극해항로 운항 활동은 주목할 만함.
- ◆ 7월 8일 북극해항로 왕복수송에 나선 중국 COSCO의 Yong Sheng호는 대련에서 안산강철공사의 철강재 9,327톤을 적재하고, 란위강을 거쳐 장진항에서 풍력발전설비 42개를 적재한 후 7월 22일 중국을 출발했음. 8월 초 북극해항로에 진입, 8월 16일 스웨덴 Varberg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10월에 북극해항로를 통하여 중국으로 돌아올 예정임. 한편 CJ대한통운의 중량화물운반선 KOREX SPB NO.2 호는 7월중순 Musaffah항에서 중량화물을 선적하고 Yamal 반도의 Sabetta 항으로 항해중임.

### ○ 2013-2015 NSR운항 신청비교



※출처. 러시아 북극해항로청(NSRA) 자료인용.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 2015년도 상반기 국제통과수송 예상선박 현황(비러시아선박 기준)

Vessel's name	Flag	Type	Western & Eastern NSR boundaries	Recent Port
BBC Louisiana	Antigua & Barbuda	Gen. Cargo	Eastern -> Western	[KR] GOHYEON(2015-07-19)
Elena VE	Liberia	Bulk Carrier	Western -> Eastern	[AE] FUJAIRAH ANCH(2015-07-23)
Gotland Aliya	Bahamas	Oil/Chemical Tanker	Western -> Eastern	[NL] IJMUIDE(2015-07-17)
Gotland Carolina	Bahamas	Oil/Chemical Tanker	Western -> Eastern	[US] HOUSTON ANCH(2015-07-21)
Gotland Marieann	Bahamas	Oil/Chemical Tanker	Western -> Eastern	[CN] TAICANG(2015-07-21)
Gotland Sofia	Bahamas	Oil/Chemical Tanker	Western -> Eastern	[US] SABINE PASS(2015-07-15)
Korex SPB No.2	Korea	Gen. Cargo	Western (Sabetta/c.Kamenniy)	[AE] FUJAIRAH ANCH(2015-07-19)
Nikolay Trubyatchinsky	Panama	Research/Survey Vessel	Western(Kara/Laptev /E.Siberian sea)	[AU] YORKEYS KNOB(2015-07-22)
Patricia V	Liberia	Bulk Carrier	Western -> Eastern	[TR] TUZLA(2015-07-16)
Polarstern	Germany	Research/Survey Vessel	Western(Kara/Laptev /E.Siberian sea)	[NO] TROMSO(2015-07-18)
Winter Bay	St. Kitts & Nevis	Pallet Carrier	Western <-> Eastern	[NO] TROMSO(2015-07-23)
Yong Sheng	Hong Kong	Gen. Cargo	Eastern <-> Western	[CN] ZHANGJIAGANG(2015-07-22)

※출처. 러시아 북극해항로청(NSRA) 자료인용

※참고. 한국 CJ Korea express corporation사 'Korex SPB No.2' 선박은 야말 '노비 뽀르뜨(Novyi port 신항)'까지 가는 편도수송임.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 □ 해운항만

### ○ 러시아 : 외국국적선의 북극해역 진입제한 검토

- 러시아 교통부가 외국국적선의 러시아 북극해역에서의 운송을 전격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World Maritime News가 전함.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새 법안은 석유와 가스 수출과 관련되어 있으며 문서가 채택될 경우, 업체들은 외국선을 이용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출할 수 없게 됨. 러 교통부에 의하면, 북극에서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의 석유와 관련된 작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법률가들이 준비 중이라 함.
- 전문가들은 이 행보를 에너지 분야에, 특히 가스프롬사와 로스네프트사에 크게 영향을 준 서방의 대러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조치로 보고 있음. 반면, 전문가들은 새 법안이 제일 먼저 러시아 기업, 특히 Sovcomflot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는데 원인은 대부분의 러시아에 있는 초대형 선박들이 외국 국적선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임.

출처: [www.mortransinfo.com](http://www.mortransinfo.com). 2015. 06. 29.

### ○ Indiga항 : 북극해항로(NSR)의 거점항만으로 될 것으로 전망됨

- Indiga항이 북극해항로의 거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고르 코신 네네츠 자치구 주지사가 야쿠츠크시 연방위원회산하 남북극 전문가위원회 간부회의 시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함.
- “북극해항로(NSR)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말할 때에는 네네츠 자치구에 Indiga 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함. 바렌츠해에 위치한 이 항구의 연안까지 따뜻한 걸프 해류가 도달하기 때문에 1년에 많은 기간이 얼지 않고, 수심이 대형선박 수용에 적합하다”고 주지사가 강조함.
- 북극해항로 개발에는 강력한 쇄빙선의 잠재력 증강의 필요성과 현대적인 북극항구의 부재 등 현재 명확한 문제가 있음. 현재 야말에 건설 중인 Sabetta항은 NSR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임. Sabetta항 서쪽에는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항구가 무르만스크항 하나뿐이기 때문에 Indiga항은 NSR항로의 거점항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동 항구의 건설프로젝트는 20세기에 수 차례 건의 되었지만, 인프라 및 예산부족이 장애가 되었음. 현재 동 항구의 건설은 네네츠 자치구발전 전략에 포함되었음. 바렌츠해 동남쪽 얼지 않는 Indiga만에 해항을 건설함으로써 15만~30만톤급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임. Indiga 석유터미널 건설로 매년 3천만톤의 석유를 수출하게 될 것임.
- 동 항구를 통해 로스네프티 및 알텍(Alltek)사의 미래 LNG공장이 Indiga에 건설될 예정이며 동사들의 제품들이 운송될 계획임. 동 공장의 자원 기반은 Kumzhinskoe와 Korovinskoe 가스콘덴세이트전(田) 이 될 것임. Indiga 지역 발전 프로젝트에 Sosnogorsk - Indiga 철도건설이 포함될 것임.

출처: [www.logistic.ru](http://www.logistic.ru). 2015. 06. 26.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 ○ 러 Rogozin 부총리: 20MW급 디젤전기추진식 쇄빙선 10척 이상 건조필요성 강조

- ◆ 야말 LNG 프로젝트 시행에 'Iceberg 중앙설계연구센터와 Krylov 국립연구센터'에서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경흥수 쇄빙선이 필요하다고 로고진 부총리가 메드베데프 총리와의 회의에서 말함.
- ◆ "쇄빙선 없이는 북극해항로(NSR) 개발은 불가능할 것임. 현 전반적인 운송구조, 철도·항구의 현대화 등 시스템적으로 취약하여 이제 이 작업은 정부의 북극발전위원회가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부총리가 강조함.

출처: [www.arctic-info.ru](http://www.arctic-info.ru). 2015. 06. 09.

## □ 북극영유권

### ○ 북극영역 확장에 관한 러시아 신청서 거부가능성 제기

- ◆ "UN 대륙붕 한계위원회가 금년에 러시아가 제출하려고 하는 북극 러시아 영역 확장신청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주요원인은 러시아의 신청서가 덴마크의 신청서에 직접적으로 반하기 때문"이라고 '미하일 레미조프' 러시아 군수산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장이 2015.06.04일~5일 양일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개최된 "Tehnoprom-2015"포럼기간에 언급함.
- ◆ "우리측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덴마크 신청서가 접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러시아 신청서의 증거 기반이 100%가 아니고, 지리학적 논증과 국제법의 혼돈도 있음. 러시아측에 클레임을 걸어올 경우에 대비해, 이미 관련 지침을 정부측에서 하달했으나, 아직은 비공개중임. 현 지정학적 상황이 만장일치가 필요한 모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레미조프는 전함.
- ◆ 가젤 해령을 일부 신청서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이전에 돈스코이 장관이 말한 적이 있는데 현재 유엔에 제출된 러시아 신청서에는 로모노소프 해령, 멘델레프 해령, 포드보드니코프 해분이 포함되어 있음. 최초, 2014년 12월 15일에 검토·승인을 위해 합의된 초안을 러시아정부로 발송할 계획이었다고 전해짐. 덴마크는 2014년 12월 15일 북극 대륙붕 외부경계 확정 신청서를 UN에공식적으로 제출함.
- ◆ 제출된 덴마크 신청서의 경계분석 결과, 한계 부지가 러시아신청서를 덮는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정부 대표들은 가젤 해령과 북극 북쪽 지역을 비롯해 러시아 북극권의 영역신청서를 확장할 필요성을 논의함. 논의 결과 아직은 이 지역 추가 조사에 가젤 해령만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었음. 현재 러시아정부에서는 재검토된 신청서의 제출시기를 결정하고 있음. 국제법에 따르면, 북극과 그에 인접하는 북빙해 지역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지만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해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 러시아는 대륙붕 영역확장에 이미 성과가 있었는데 2013년 11월 중순에 UN 관련위원회는 오호츠크해 중심지역 52,000 km<sup>2</sup>의 영역을 러시아 것으로 인정한바 있음.

출처: [www.interfax.ru](http://www.interfax.ru). 2015. 06. 04.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 □ 북극해항로 운항

### ○ 북극해항로(NSR) 통과운송은 변동성이 있고 특수성을 보일 것임

- ◆ “가까운 장래에는 북극해항로의 통과운송이 변동적이고 계절적인 성향이 예상된다”고 2015.06.23.~24일 진행된 ‘조선과 해운발전의 현안과제’ 국제회의 시 ‘알렉세이 슈트렉’ 국립중앙설계연구소(CNIIIMF)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함.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일부가 NSR항로로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적재가 가능한 북극 컨테이너선 건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 “러시아 북극 탄화수소 생산의 새로운 프로젝트(Sabetta항 LNG 공장건설 프로젝트, Kamenny 곳 지역 Ob만 석유수출 프로젝트) 시행에는 북빙해에서 연중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석유·가스 운송을 보장할 수 있는 빙중항해용 대형 유조선들과 가스운반선의 건조가 필수적임. 완만한 선수부와 후진항행 시 2.1m 두께의 얼음 쇄빙이 가능하며 360도 회전하는 총 45MW의 조타 프로펠러 3개를 보유한 약 17만 cbm급 Arc7 가스운반선이 사베타항구에서 LNG 가스수출을 할 예정”이라고 전함.
- ◆ “통상적으로 고가의 초대형 쇄빙운반선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쇄빙선의 도선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이익임. 북극에서 유력한 type의 대형선박 설계 시에는 쇄빙선 도선의 최적 활용, 쇄빙선의 주요 제원, 대빙·기동능력들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www.portnews.ru](http://www.portnews.ru). 2015. 06. 23.

### ○ 쇄빙선 Krasin호 : 북극해항로(NSR) 운항지원을 위해 북극으로 출발함

- ◆ 쇄빙선 Krasin호가 북극해항로의 하계기간 도선서비스 지원업무를 위해 블라디보스톡항에서 북극 동쪽해역으로 출발했다고 FESCO그룹 공보실이 전함.
- ◆ 2015년 북극 하계운항기간 동 쇄빙선은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추코트카와 북극해항로에 위치한 항구로 운송하는 선박들의 도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 FESCO 그룹은 북극운송에 총 11척의 운반선을 이용할 예정임.

출처: [www.neftegaz.ru](http://www.neftegaz.ru). 2015. 06. 24.

### ○ 쇄빙선 Kapitan Dranitsyn호, 무르만스크항으로 귀항

- ◆ 쇄빙선 Kapitan Dranitsyn호가 ‘제물랴 프란츠요셉’ 열도 지역에서 91일간의 항행임무수행 후 무르만스크 항으로 6월 11일에 귀항함. 무르만스크항에는 7월 말까지 임무를 맡을 예정이며 이후 정기 선박수리를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그로 귀항할 것이라고 Rosmorport사 공보실이 전함.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 ◆ 2015년 초에는 Sabetta항내 해역 및 동 항구로 향하는 선박들의 도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3월부터는 '프란츠요셉 제도'와 제믈라 알렉산드라'로 향하는 선박들의 도선 서비스를 지원하였음.

출처: [www.rus-shipping.ru](http://www.rus-shipping.ru). 2015. 06. 16.

## □ 북극일반

### ○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 북극해항로(NSR) 발전계획 승인

- ◆ 메드베데프 총리가 향후 15년간 북극해항로 물동량을 20배 증가시키는 북극해항로 발전 종합 계획에  
서명했다고 TASS통신사가 보도함. "이전에 동 항로는 훨씬 충실히 이용했으며 동 항로는 국가의 수송물류 이점의 실현을 위해 운용해야 한다"고 총리가 강조함.
- ◆ 북극해항로는 극동지역, 아·태지역, 북아메리카의 서쪽지역을 유럽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이지만,  
현재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부총리들과의 만남에서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함.
- ◆ 금년 안에 북극해항로용 슈퍼 쇄빙선 프로젝트가 소개될 것임. 이러한 130 MW급 쇄빙선은 4m이상의  
얼음도 문제없을 것임. 60W급 쇄빙선 시리즈는 2017년, 2019년, 2020년에 진수할 예정이며, 20MW급 디젤 쇄빙선은 약 10척 건조할 계획이라고 로고진 부총리가 말함.
- ◆ 현재 NSR 통과화물 운송량은 연 4백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15년간(종합 계획 시행기간임)  
평가되는 잠재력은 8천만 톤 이상이며, 이것은 구소련 시기의 운송량을 초과한다고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가 말함.

출처: [www.interfax.ru](http://www.interfax.ru). 2015. 06. 08. [www.infranews.ru](http://www.infranews.ru). 2015. 06. 08.

### ○ 러시아 연방위원회, 북극발전 법령의 기본구상을 마련

- ◆ 러시아 북극지역과 그 한계의 위상, 그리고 북극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의 주요목표 및 방향의 실현의  
법적 제도를 법령화하는 것이 동 법령의 목적이라고 연방공보실이 전함.
- ◆ 문서의 채택은 북극전략과 발전 실현에 법적 제도를 만들어 주고, 경제, 수송인프라, 대륙붕 개발과  
연관된 북극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가속화함.
- ◆ 연방위원회의 법안은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발전전략 대책, 2020년까지 국가안보 보장, 러시아연방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북극지역 발전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체 또는 일부가 북극지역에 포함되는 지역과 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들의 상호협력·조정 절차를 정함. 북쪽 소수민족의 경제와 문화 잠재력을 러시아 북극의 안정적인 발전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제정됨.

출처: [www.arctic-info.ru](http://www.arctic-info.ru). 2015. 06. 26.

### ○ 러시아 북극위원회 : 7월 10일 북극발전 개선을 위한 첫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 러시아 북극위원회는 7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함. 주요 회의내용은 러 정부측의 북극지역 지자체 지원문제, 운송 발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실현, 북극비즈니스 및 관광 관련 제안 등임.
- 회의에서 정부측 관료들은 러시아 경제발전부 장관의 '2020 북극발전 전략수행' 발표, 정부지원, 북극기업에 대한 동기부여 등에 대해 핵심주제를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무르만스크주, 네네츠자치구, 야말-네네츠자치구, 추코트카주, 야쿠티야공화국, 노릴스크시, 아르한겔스크 등 북극지역에 위치한 주요 지자체 단체장, Atomflot, Rosatom 등 업체대표들도 북극관련 프로젝트 업무협약에 참가하였음.

출처: [www.forexaw.com](http://www.forexaw.com). 2015. 07. 10.

### ○ 2015년 6월말 러시아 야말반도 Sabetta항 4번째 화물선석 완공 예상

- Sabetta항의 4번째 화물선석이 6월말에 완공되고, 시장성이 높은 상품의 하역을 위한 2개의 선석은 20% 완공되었다고 드미트리 모나코프 야말 LNG 건설 제1 부사장의 말을 현지 언론이 전함.
- 동 부두는 2017년에는 LNG 탱커를 수용할 준비가 될 것임. 하계에는 북극해항로를 통해 아태지역으로 공급하고 겨울에는 벨기에의 Zeebrugge항 재기화 터미널(regasification terminal)에서 환적 해 서쪽 항로를 통해 아태지역으로 공급할 예정임.
- Sabetta항은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The Northern latitudinal railway' 철도 프로젝트와 함께 우랄과 시베리아 지역의 산업에 새로운 시장으로의 길을 열어 주고, 수송물류 문제에 최적의 솔루션을 보증해 줌.
- "신항 Sabetta를 LNG 가스 운송을 위한 독점 항이 아닌 더 넓은 의미로 본다. 인접 지역에도 수출지원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화물 운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전 지역들에 아시아, 유럽, 미국향 북극해항로의 관문을 열어주는 다기능 터미널로서 국가 전체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국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자원 발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드미트리 코빌킨 주지사가 강조함.

출처: [www.rus-shipping.ru](http://www.rus-shipping.ru). 2015. 06. 22.

### ○ 러시아 북극위원회 : 국제무대에서 북극해항로 홍보활동을 볼 수 있을 것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 ◆ 러시아 북극위원회 핫뉴스는 북극해항로 종합발전 프로젝트에 조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연방 정부수반과 부총리들과의 회동임. 회의 중에 메드베데프 총리는 현재의 북극해항로 활용도면에서 불만족스러우며, 조인한 안들의 시행이 북극해항로만의 독특한 운송물류의 이점을 확대시켜, 국가예산의 세입을 확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함. 북극해항로 물동량의 증가는 '야말 LNG' 공장가동 및 외국선박의 도선과도 연관되어 있음.
- ◆ 북극해항로(NSR)에 대한 국제운송회사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금년 10월 하얼빈 EXPO 및 기타 국제 무대에서 홍보캠페인을 계획중이라고 드미트리 로고진 북극위원회 책임자가 밝힘. 북극해항로 또한, 인프라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내에 수퍼쇄빙선 프로젝트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림.

출처: [www.arctic-info.ru](http://www.arctic-info.ru). 2015. 06. 15.

### ○ 러시아 국경획정국 : 2016년에 21번째 해양 국경검사소 개설 예정

- ◆ 러시아연방 국경획정국이 NSR항로상의 추코트카주 Beringovskiy항에 21번째 국경검사소를 2016년에 개설할 준비를 한다고 콘스탄틴 부시긴 국장이 TASS와의 인터뷰에서 말함. 러시아 북극지역 동쪽과 연결되는 추코트카를 통해 아태지역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 ◆ 2000년부터 운영이 중지되었으나 현 Beringovskiy항 해양 국경검사소가 재건중임. 항구는 짧은항행기간으로 인해 5월-10월에만 운영될 것이라고 국장이 말함.
- ◆ 러시아 북극지역에는 총 20개의 국경검사소(국경 2만km)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양 12곳, 영공 3곳,육상도로 3곳임. 2010-2015년에 조성된 북극 전체 국경검사소의 1/4는 해양 국경검사소로 페벡, 사베타, 바란데이, 두딘카항에 각각 위치함. 연방목적프로그램 '러시아 연방 국경(2012-2020년)'의 틀 안에서 러시아연방 북극지역에 추코트카 자치구의 아나디르항(2018-2020년), 아르한겔스크 주의 아르한겔스크항(2018-2020년), 무르만스크주의 무르만스크항(2014-2020년) 등의 해양 국경검사소 설계·건설(재건)이 검토됨. 추가 개설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안건은 국가 북극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국장이 말함.

출처: [www.rus-shipping.ru](http://www.rus-shipping.ru). 2015. 06. 04.

### □ 비즈니스

#### ○ 러시아 Novatek사 : 프랑스 Engie사와 야말 LNG 2,300만톤 공급계약 체결

- ◆ 동 계약은 23년간, 매년 1백만톤의 LNG공급에 대한 약정이며, Novatek사의 자회사인 'Novatek Gas & Power'사가 공급자로, 동 회사는 이전에 조인된 계약에 의해 야말 LNG로부터 가스를 확보할 예정임.
- ◆ 돌드 브레타뉴항(Dol-de-Bretagne; 프랑스 서쪽연안)으로 Engie사로 공급된 LNG는 탱커에 환적 될 것임. "동 야말 LNG 프로젝트 제품 판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장기계약의 체결은 공급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보증해 주고, 프로젝트의 외부자금 유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임.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Engie사는 좋은 파트너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회사가 LNG 마케팅 분야의 경험을 추가적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레오니드 미켈슨 회장이 전함.

출처: [www.tass.ru](http://www.tass.ru). 2015. 06. 02.

### ○ 러시아 Novatek사 : Shell사와 야말산 LNG가스 장기공급계약 체결

- ◆ 동 계약은 Novatek Gas & Power사(Novatek의 자회사)가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야말 LNG 프로젝트로부터 확보할 양의 연 약 90만톤의 LNG를 20년 이상 기간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회사 공보실이 전함.
- ◆ "현재 야말 LNG 프로젝트의 액화천연가스 공급계약의 서류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음. Shell사의 노하우를 고려해서, 동사와 LNG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Novatek사 레오니드 미켈슨 회장이 말함.
- ◆ "Shell사에 있어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국가다. LNG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처럼, 우리 회사도 러시아 북극 LNG를 판매하는 Novatek사와의 장기계약 체결을 환영한다"고 Shell사 데이비드 웰스 LNG 판매 부사장이 강조함.

출처: [www.yamal.org](http://www.yamal.org). 2015. 06. 04.

## □ 자원개발

### ○ 2030년경 북극 석유·가스 생산 : 러시아가 미국을 14배 앞지를 것

- ◆ 세계석유회의(WPC)의 연말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북극 대륙봉이 러시아 석유가스생산의 핵심이 됨. 러시아 북극 대륙봉 유전 생산량은 현재의 1일 60만 배럴에서 2030년경에는 220만 배럴로 3.6배 증가예상 되며, 동 지역에 대한 서방석유기업들(노르웨이/캐나다/미국)의 1일 총 생산량은 175만 배럴이 예상됨. 노르웨이 기업은 1일 70만 배럴, 캐나다 기업들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 90만 배럴, 미국 15만 배럴을 생산할 경우 러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함.
- ◆ 바렌츠해, 카라해, 페초라해, 사할린, Ob만 대륙봉들은 15년 후에는 러시아 석유·가스 생산원의 55%를 차지할 것임. 현재 북극 탄화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최대한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정부는 수송거점 및 북극해항로(NSR)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지역에 군대와 구조 센터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전함.

출처: [www.neftegaz.ru](http://www.neftegaz.ru). 2015. 07. 03.

### ○ 돈스코이 천연자원부 장관 : 러시아는 미국의 Shale 도전을 받아들여야 함

- ◆ "현 러시아의 자원생산 속도를 유지할 경우, 전통적인 자원 기반은 30-40년은 충분함. 바체노프 혈암지대 자원(Shale oil 자원) 외에도 자국의 석유가스자원을 몇 배로 증가 가능하다. 채굴이 어려운 자원들과 대륙봉 자원이 추가 자원기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장관이 강조함.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 ◆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서시베리아 유전의 채굴 깊이가 현재 4km를 넘지 않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북극 대륙붕 유전이 있다. Shale생산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조사하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가 있다. Shale생산은 유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러시아 석유기업들을 위협하지는 않고 있다”고 돈스코이 장관은 알림.
- ◆ “석유시세 하락은 Shale 생산과 유가상승의 기대로 생산하고 있지 않는 유정을 예비로 4~5천 개 보유한 미국에서 주로 강하게 나타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출발해 새로운 채굴방법과 원유회수 증대방법을 도입하여 Shale 프로젝트로부터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장관은 강조함.

출처: [www.neftegaz.ru](http://www.neftegaz.ru). 2015. 06. 17.

### ○ 마트비엔코 러 상원의장 : 러시아는 반드시 북극개발법을 채택해야한다고 강조

- ◆ “러시아가 북극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중요한 단계로 러 북극지역개발관련 기본법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Valentin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이 남북극 전문가위원회 회의 시 강조함. “북극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연자원의 글로벌 보관소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선행개발에 의해 그 지역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고 새로운 수준에서 회복해야 하며, 그것은 20세기에 있어 북극개발에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Matvienko가 강조함.
- ◆ 관련 법안은 1998년에 하원에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TASS는 보고함. 또한, 2013년에 러시아 정부는 “이것은 지방법에 의해 조절 될 수 있어 북극지역개발로 채택이 부당했다”고 알림. “북극은 우리의 전략적 관심영역뿐만은 아니며 러시아는 북쪽의 큰 국가입니다. 역사와 지리는 몇 세기 전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우리사람들을 위한 작업을 설정한다”고 의장은 강조함.

출처: [www.arctic-info.com](http://www.arctic-info.com). 2015. 06. 26.

## □ 북극환경

### ○ 북극 및 북극해항로(NSR) 모니터링에 무인항공기 사용 계획

- ◆ 무인항공기 서비스 관리 전문가 그룹이 러시아 북극현황 모니터링용 드론의 준비를 위해 추코트카를 방문했다고 R. Martov 러시아 극동군관구 군간부가 전함. 태평양 대륙붕과 북동쪽에 위치한 극동군관구 책임구역내 육군 및 해군 전투훈련장 감시에 드론이 사용될 것이며 향후 무인기는 선박의 에스코트, 러 북극해항로 해역의 환경 및 얼음 상태를 확인하는데도 사용될 것이라 전함.
- ◆ 추코트카에서는 무인항공기 Orlan-10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무인기의 테스트는 2015년 3월 말에 북극 조건에서 시작되었음. 2014년 12월에 무인항공기 부서가 추코트카에 창설되었음. 무인항공기 Orlan-10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물체 감시와 구조탐색 작업에 사용 가능함.

| 특집 | 해운항만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비행거리는 600km, 속도는 150km/h 까지 높일 수 있고, 5kg미만의 화물운반도 가능함.

출처: [www.neftegaz.ru](http://www.neftegaz.ru). 2015. 06. 10.

#### ○ 일본 교육·연구기관 : 러시아 톰스크대와 북극 기후변화 연구관련 협력체결

- ◆ 6월에 러시아 톰스크주 사절단이 도쿄를 공식 방문하여 일본 교육·연구기관들과의 협력 약정서를 체결함. 일본 국립극지연구소 과학자들이 톰스크대학 북극관측소 네트워크에 관심을 표명한 후, 일본측 연구그룹과 동 대학이 협업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일본 과학자들은 동 대학 장비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갈라진스키' 톰스크대 학장이 전함.

출처: [www.arctic-info.ru](http://www.arctic-info.ru). 2015. 06. 18.